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안) 심의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2005년 12월 21일 중구 소재 동보성에서 정부 및 관련 업₩단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안)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백영기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이 개회인사를 하고 최민구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이 격려사를 한 후 경과보고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기봉 대한전기협회 전기전문위원회 위원장을 통합위원장으로, 통합간사로는 김한수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실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신기술기준(안)의 구성은 전기설비, 화력설비, 수력설비, 용접 등의 4개 기술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발전용 풍력설비 기술기준을 포함시켰다.

신기술기준고시(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안전원칙, 정의, 적합성판단 제2장 전기공급 및 사용설비는 일반사항, 전기공급설비의 시설, 전기사용설비의 시설 제3장 발전용 화력설비는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를 비롯해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 연료전지설비 제4장 발전용 수력설비는 댐 및 저수지, 수로, 수차 및 기타 설비 제5장 발전설비 용접 제6장 발전용 풍력설비 등으로 되어있다.

대한전기협회는 앞으로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및 시스템을 국제화 및 선진화하여 전기설비의 설계₩제작₩시공₩운영₩보수₩검사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 공중의 안전 및 전기사업의 효율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국제표준 제/개정사항 검토 및 보완 ▲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시스템 구축 ▲ 기술기준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기술기준 관련 기술지침/규정 개발₩보급 ▲ 주요 기술사항의 조사연구 수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